**마0407 Note**

**◆인용문 : 신0616**

신0616. 너희가 맛사(맛싸:시험하기,시험,유혹)에서 그분을 시험하였던(나싸:시험하다,시도하다,모험하다,꾀하다,증명하다,감행하다) 것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출1701.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행진 [맛싸:(천막을 철거하여)출발,행진하다,주둔지,출발지점,여행(하고 있는)]을 좇아 신 광야로부터 여행하여, 르비딤에서 진(陣)을 치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아무런 물이 없었느니라,

출1702.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리브:뒤흔들다,붙잡다,말다툼하다,논쟁하다,꾸짖다,불평하다,다투다,잠복하여 기다리다,변론하다,책망하다,항쟁하다), 말하니라, 우리가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투덜내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나싸:시험하다,시도하다,모험하다,꾀하다,증명하다,감행하다)?

출1707. 그리고 그가 그 곳의 이름을 맛사(맛싸:사막의 한 장소 맛사,시험하기,시험,유혹)와 므리바(메리바:광야에 있는 두 장소의 이름,므리바,다툼,성나게 함,싸움)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투덜거림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가, 아니면 아니 계시는가?

◇예수님은 사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탄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며, 예수님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말씀은 통상적으로 진리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진리의 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배치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도, 우리 주위의 자연도, 우리의 몸도 조화와 균형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하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형제를 판단하여 우리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하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형제를 판단하여 그를 넘어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문밖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 자기 점검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도 진리의 일부분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말씀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맞은 편에는 엄위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분은 호의를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보여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한절 한절 발췌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의 해석은 전후의 전체의 문맥에서 이끌어 내어져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일부분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도랑에 빠지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